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강력 촉구 1100개 연등으로 희망 밝힌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 극복 위한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4일 제290차 월례회를 열고 진안군의회 동청읍 의장이 제안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양수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설비로, 잉여 전력을 저장해 전력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는 주요 시설이다. 진안군은 청정 자연환경과 풍부한 수자원 등 최적의 조건을 바탕으로 양수발전소 부지로서 탁월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동청읍 의장은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진안양수발전소 유치는 단순 발전시설이 아닌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경제 활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24일 제290차 월례회를 열고 진안군의회 동청읍 의장이 제안한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다"고 소개했다. 이날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건의안'은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역~진안역 지선철도 반영하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포함' 건의안 채택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24일 제290차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달빛철도 장수역과 영호남내륙철도(전주-김천) 진안역 간 지선 신설 건의안'이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의 지지를 받으며 채택되었다.

이날 장수군의회가 제출한 건의안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장수역~진안역 지선철도를 반영하라는 요구와 함께 지선철도 연결은 전북 및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최한주 의장은 "장수역과 진안역의 지선철도가 설치된다면 합양, 거창, 합천, 고령이 새만금과 더 가까워지고 광주, 담양, 순창이 무주리조트와 이어짐으로써 두 노선은 더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며 "백두대간으로



장수군의회가 24일 제290차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달빛철도 장수역과 영호남내륙철도(전주-김천) 진안역 간 지선 신설 건의안'이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의 지지를 받으며 채택되었다.

가로막혀 낙후되었던 교통망이 철도 인프라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되었으며, 건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 확대 방안 모색

진안군이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넣어 공공기관 식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진안군은 24일 군청 상형실에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확대방안 협의회'를 열고, 지역 농산물의 공공급식 확대

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군청 관계자와 관내 공공기관 영양사, 식재료 구매 담당자, 로컬푸드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지역산 식재료 공급 확대를 위한 기관별 의견을 나누고, 공급 가능 품목과 물량을 공유했다. 또한 공공급식 확대에

따른 운영체계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군은 현재 학교급식 위주로 공급 중인 지역산 농산물을 내년부터 군청과 보건소, 노인복지관, 진안군의료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공공기관 급식에 우선 확대 공급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202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공공단체 급식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불기 2569년 석가탄신일 기념해 대형 연등탑 점등

무주군이 불기 2569년 석가탄신일을 기념해 군청 앞에 대형 연등탑을 설치하고 24일 점등 행사를 가졌다.

기념식과 점등, 탑돌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점등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봉축위원장을 맡은 원통사 진일스님 등 지역 내 사찰 주지 스님들과 불교대학교 학생, 그리고 주민 등 300여 명이 자리해 성황을 이뤘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국내외적으로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갈 길을 잃은 마음들이 평안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을 밝힌다"라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중생들의 소망이 이 자리에서 함께 빛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다. 이어 "한 달여간 지속될 연등 불빛의 감동이 K-관광수도 자연특별시 무주를 더욱 특별하게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은은하게 불을 밝힌 연등탑을 보니 마음에 안정이 가는 듯하다"라며 "모두에게 건강하고 평안한 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무주군청 앞 분수대에 설치된 대형 봉축 연등탑은 5월 25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으로, 1,100개의 연등을 달린 높이 9m, 둘레 24m 규모의 탑은 주변에 설치된 아기 동자와 연꽃, 소원 메도 공간 등과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23일 군청 회의실에서 '군수님과 함께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원과 민원업무 담당 직원 13명이 참석해 직원들이 그동안 처리한 민원 사례를 공유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는 물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민원업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직원들은 대민업무 처리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고 감정노동으로 지친 민원담당 직원의 스트레스 해소 방안과 악성 민원 공무원 보호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민원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



의도 활발하게 이어졌다.

최훈식 군수는 "다양한 민원업무에 따른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고 민원담당 직원들이 항상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원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테니 민원담당 직원들 또한 자신의 업무에 자긍심을 갖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입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30일 마감

장수군이 올해 지급 예정인 입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입업직불금')의 신청·접수가 30일 마감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기한 내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입업인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대상은 해당기간 내 입업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입업에 종사한 자에 한한다.

입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와 육림실적 및 영림일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특히 신청산지에 대한 공익사업의 경우 실적조치는 군청 산림과에서 발부 가능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장수소방서, 업무협약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 장수소방서(소방서장 한동규)는 지난 23일 무진장지사에서 지역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문화 확산 및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안전 사고 예방과 재난대응에 시너지를 창출하여 장수지역 안전보장 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협약에는 장수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여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내고향 물 살리기 쓰담쓰담 함께 가꾸는 호숫길 행사 등 사회공헌활동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한 화재 진압 등 구조·구급 활동을 함께 전개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보호에 양 기관의 역량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양희 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수소방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 곳곳서 이웃사랑 나눔 잇따라

무주군 후도마을 정명일 이장과 무풍면 서선아 씨가 무주군내 홀몸어르신들(밀반찬 지원대상자) 100명에게 각각 시금치 50kg, 사인머스켓 과일도시락 100개·누룽지 50봉지를 기탁했다.

한국도로공사 무주지사(황진규)도 온누리 상품권 200매를 기탁하기도 했다.

밀반찬 지원사업은 매달 2회씩 무주군내 6개 읍면에 100가구에 전달되며, 조리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배달은 한국도로공사무주지사, 덕유산국립공원, 무주양수발전소, 태권도원,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사회복지협의회 등 기업과 기관이 함께 협조하고, 그 외 개인봉사자(이진규, 이정화, 정희영)가 가가호호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온기를 전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